



여름철 폭염과 자연재해보험

최창희 연구위원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음. 향후 수년간 올해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보험자(정부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 요령 및 모범 사례 홍보 확대,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자연재해보험에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도 수도권 폭염 일수는 25.8일로 자연재해보험에 6,197억 원의 손해(손해율 226.5%)가 발생했던 2012년(11.3일)에 비해 14.5일이나 더 많았음¹⁾
 - 최근 정책성재해보험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2012년보다 더 클 수 있음
 - 최근 연 보험료가 30% 내외로 성장하고 있음²⁾
- 올해 폭염과 태풍의 영향으로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³⁾
 - 2018년 8월 16일 기준으로 572만 마리의 가축 폐사, 2,909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
 - 2018년 8월 15일 기준으로 고수온과 적조로 수산물 152만 마리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수산물 가격이 인상됨
 - 여름철 폭염으로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겨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8월 농산물 평년 대비 도매가격 인상률은 배추 50%, 무 66%, 수박 54% 등임⁴⁾
 - 또한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프라삐룬과 솔릭의 영향으로 피해가 가중되었음⁵⁾

1) 기상청 보도자료(2018. 8. 17) 참조

2) 2015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2012년 대비 70% 이상 성장함. 2012년 보험료는 2,735.6억 원, 2015년 보험료는 4,655.4억 원이었음

3)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2018. 8. 16), “폭염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참조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8. 2), “농식품부, 폭염 장기화에 대비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참조

■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법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⁶⁾,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이 있음(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리스크와 보험계약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순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부가보험료(사업비)를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형태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 손해보험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보험 리스크를 인수하는 형태로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이 운영하고 있음
 -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경우 일정 손해율⁷⁾까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손해율을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부담함

〈표 1〉 자연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리스크 분담

자연재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리스크 분담
농작물재해보험	정부50%, 지자체 15~40% 지원 ¹⁾	보험회사가 손해율 150~180%까지 부담, 초과분 정부 부담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재해보험	정부 50%	보험회사가 손해율 150%까지 부담 ⁴⁾ , 초과분 정부 부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순보험료 ²⁾ 의50%, 부가보험료 ³⁾ 의100%	
풍수해보험	정부 55~92%	먼저 보험회사가 준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초과부분을 국고 지원 ⁵⁾

주: 1) NH농협손해보험에는 이같이 나와 있고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서』에는 순보험료의 50%(일부 농작물의 경우 40~60% 차등 지원), 부가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음

2) 순보험료는 보험료 중 보험금지급을 위한 보험료 부분임

3) 부가보험료는 사업비임

4) 수협과 재보험회사가 보상

5) 최근 국가재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40, 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 참조

자료: 『20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서』; 농협손해보험(<https://www.nhfire.co.kr/>); 수협은행(<https://www.suhyup-bank.com/>);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강수진(2018),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분석 및 위험분산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5)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8. 23), “농식품부, 태풍 ‘솔릭’ 농업피해 예방 총력대응”;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8. 8. 23), “농식품부, 호우 및 태풍(쁘라삐룬) 피해 총력지원” 참조

6)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되어 있음

7) 손해율=보험금/순보험료

■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담보, 사업주체, 근거법, 소관부처 등은 <표 2>와 같음

<표 2> 자연재해보험의 보상 내용, 근거법 및 소관 부처

자연재해보험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업자	근거법	소관부처
농작물 재해보험	각종 자연재해 ¹⁾ , 조수해, 화재, 병충해 ²⁾ 로 인한 농작물 손해	NH농협손해보험	농어업재해 보험법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수입 보장보험	자연재해 ¹⁾ ,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 보상			
가축재해보험	화재, 풍수해, 폭염, 폭설, 질병 ²⁾ 으로 인한 가축 손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손해, 자연재해 및 낙뢰에 의한 설비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양식수산물 손해	Sh수협은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해양수산부
풍수해보험	주택 및 온실에 대한 각종 자연재해 ³⁾ 손해 보상	DB손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행정안전부

주: 1)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등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및 질병

3)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보상 내용은 각 상품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자료: 농협손해보험(<https://www.nhfire.co.kr/>); 수협은행(<https://www.suhyup-bank.com/>) 및 각 법령 참조

■ 향후 수년간 올해와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보험자(정부와 보험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영국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발생한 고온현상이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음⁸⁾
-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경우,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와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정부의 보험료 보조, 자연재해보험의 빠른 시장 확대, 다수의 보험사고 후 보험 가입 증가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보험자(정부, 보험회사)의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임

■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 체계 개선,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연재해 대응 요령 및 모범 사례 홍보 확대, 자연재해보험 운영 체계 개선 검토 등을 통해 정책성 자연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액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풍수해보험의 지진담보와 같이 캣모델(Cat-Model)을 이용한 보험료 산출을 타 정책성 자연재해보험

8) 영국 기상청(2016), "Five-year global temperature forecast: 2016-2020", <https://www.metoffice.gov.uk/news/releases/2016/decadal-forecast> 참조

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누적 경험요율이 활용되는 타 자연재해보험의 경우, 높은 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자에게 손해가 누적될 수 있음

●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자연재해 대응 요령과 성공 사례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보험수요가 확대되고 대형 자연재해 발생할 시 보험자의 무한 책임이 요구되는 현행 자연재해 보험 운영 체계를 해외 사례를 고려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에 한도를 두거나 결손액을 회수하는 방법이 제도에 명시되어 있음(최창희 2017⁹⁾; 강수진 2018¹⁰⁾ 참조) **kiri**

9) 최창희·한성원(2017),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보험연구원

10) 강수진(2018),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분석 및 위험분산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부산대학교